고용노동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5.(목) 14:30 (2026. 11. 6.(금) 조간)

대구-경북, 미래모빌리티 산업과 일자리를 하나로 잇는다

- 고용노동부·대구광역시·경상북도, 「대경권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」 출범
- 기업 간 기술협력부터 인재양성·지역 정착까지, 초광역 일자리 협력 본격 추진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11월 5일(목)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**경상북도, 대구광역시**와 함께 **「대경권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」 출범식**을 개최했다.

“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”는 개별 **광역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** 지역 간 **산업**과 **인재**를 **연결**하고, **인재 양성**부터 **취업**과 **지역정착** 등을 함께 지원하는 **초광역권 연계 일자리 사업**이다.

올해는 **대구·경북, 부울경, 충청권** 등 **3개 권역**에서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, **대구·경북**에서는 **미래모빌리티 산업**을 중심으로 **올해 총 101억원**(국비 81억원, 지방비 20억원)을 **투입**하여 추진한다.

이번 출범식은 **대구와 경북**이 **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산업**과 **인재, 일자리 정책**을 **연계**하고, **미래모빌리티 산업**을 중심으로 **초광역 일자리 협력**을 **본격화**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출범식에는 **임영미 고용정책실장**과 **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,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부의장,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, 박종필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**, 대구·경북 기업·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**참석**하여 대경권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의 출범을 알리고 **지역 간 협력 의지**를 다졌다.

구체적인 지원내용은 **▲청년 연구개발 인재양성 및 채용 지원 ▲중장년 고용서비스와 재직자 역량 강화 ▲권역 내 통근 노동자의 주거·교통비 지원 ▲기업의 일터 개선 ▲초광역 채용박람회 및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, ▲대구·경북 원·하청 및 협업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(R&D) 지원** 등을 추진한다.

이를 통해 **청년**에게는 **지역 성장기업**에서 **전문성**을 쌓고 **취업할 기회**를 넓히고, **중장년**에게는 **직무역량 강화**와 **새로운 경력 설계**의 기회를 제공한다. 또한 지역의 경계를 넘어 **출퇴근**하는 **노동자**의 **주거·교통 부담을 덜어** 안정적인 근무와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.

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"**대구와 경북**은 **오랜 시간 산업과 생활을 함께 이어온 지역**으로, **각자의 강점**을 **하나로 모을 때** 더 큰 **성장**과 **일자리**의 **기회**를 만들어낼 수 있다"라며,

"이번 프로젝트가 **기업의 기술혁신**과 **인재의 성장**을 함께 뒷받침하고, **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**이 **대구와 경북**의 **좋은 일자리**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윤혜 (044-202-7404)
		담당자	서기관	송은정 (044-202-7410)
		담당자	주무관	김선미 (044-202-7411)
		담당자	주무관	정준수 (044-202-740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